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11 | 제153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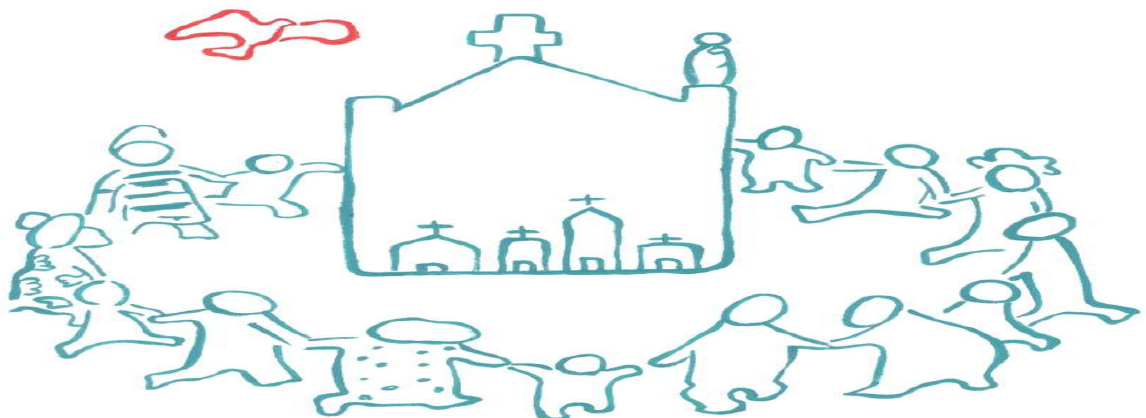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복음 나누기

연중 제33주일 (11월 14일)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마르 13,24-32)



주님의 날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의 날'로서, 세상이 완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종말을 예고하시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악을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4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25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6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27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8 너희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29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31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르 13,29)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31)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인 순간이나 성경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술, 마약, 도박...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잊게 하고, 인생이 낭비 되는 것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우리를 취하게 하고, 깊이 빠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중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일 중독... 그렇게 중독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종말을 대비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온 정신과 온 몸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마니아'라는 말도 사실 위험한 말입니다. 뭔가에 '미친 것처럼 빠져 있다'는 것도 정도껏 할 일입니다. 그게 정말 건전하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해도...

신앙인들에게, 예수님 말씀 외에는 '미친 것처럼 빠져들'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송영진 모세 신부님-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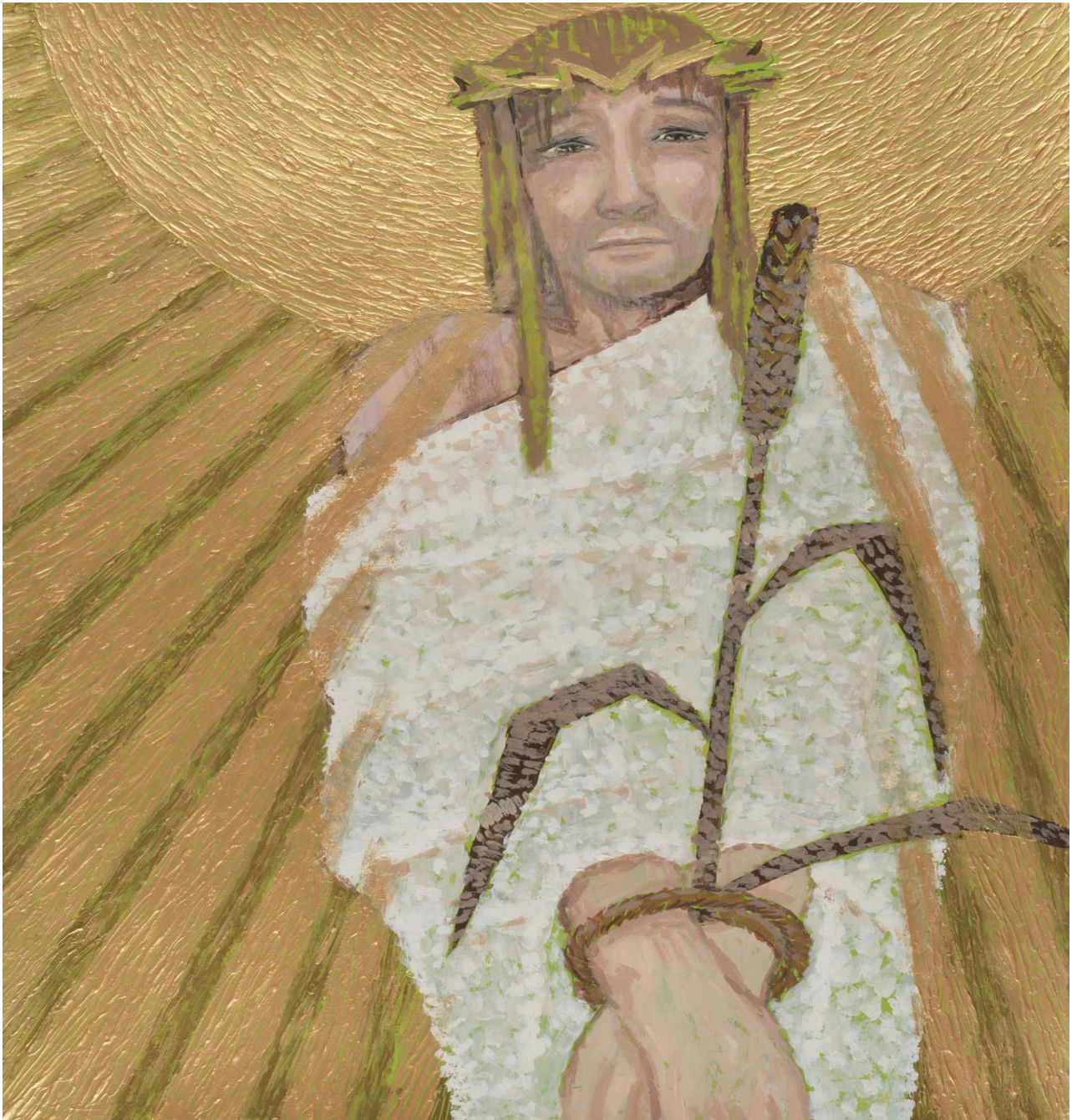
[진행자] 가톨릭 성가 31번 "이 크신 모든 은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복음 나누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왕 대축일(11월 21일)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8,33ㄴ-37)



사랑과 연민의 왕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예수님께서서는 비천하고 궁핍한 이들을 위로하시는 사랑과 연민의 왕이십니다. 황금 빛 찬란한 슬픔의 빛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당신의 눈동자를 마주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8장 33ㄴ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33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물었다. 34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35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36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7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요한 18,36ㄴ)

우리는 가톨릭신자로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37ㄴ)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있습니까?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권력과 힘을 가지려던 수많은 왕과 권력가들이 이룬 흥망성쇠의 역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몫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수단과 방법이 불의해도 역사를 주도한 인물들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권력의 희생양이 된 민초들의 삶과 역을 하게 당한 소수의 역사는 왜곡되고 억압되며 멸시당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도 교회의 권력에 희생된 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구촌에는 여전히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이들이 많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를 꽃피운 나라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있고, 권력의 횡포에 대한 제재와 감독은 물론 공직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시민 의식도 커 가고 있습니다. 정경 유착과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목마른 시민들이 이룬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도 세계사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여전히 권력의 시녀로 살아오며 잘못된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전례력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세속의 역사에서는 실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2천 년이 지난 오늘 그분의 진리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신자들의 순교와 영웅적 신앙 고백을 통하여 승리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권능의 상징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며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시는 선언은, 세상이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가 간직해야 할 중요한 복음입니다.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 영적독서 >

이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교회는 특별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경 독서 방식의 스승인 교부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보다도 그리스도와 친밀함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그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최선의 길은 사랑이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86항)

① 거룩한 독서의 방법은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Lectio)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② 다음으로는 ‘묵상’(Meditatio)이 따르는데 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이 ‘개인적’ 일이든 ‘공동체에’ 연관된 일이든 자기 자신의 삶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③ 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기도(Oratio)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묵상 중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구체적인 기도’(청원, 전구, 감사, 찬미)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시선과 뜻’에 머무르는 ‘관상’(Contemplatio)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④ “사실 관상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실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2,16)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 87항)

⑤ 또한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Actio)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87항)

<다음 호에 계속.....>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